

# 韓國經濟의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 韓 利 憲

우리는 지금 世紀末의 歷史的 轉換點위에 서있다. 밖으로는 世界經濟秩序의 再編過程에서 無限競爭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으며, 안으로는 급작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를 統一에 대비하여 國力을 배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21世紀의 國家先進化와 統一課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온 國民이 舍心하여 總體的인 國家力量을 배양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實物經濟의 發展이 民間에 의해 實質的으로 主導되는 방향으로 轉換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企業들은 변화하는 企業環境을 견디기 수용하고 未來에 대비하는 과감한 經營革新을 통해 강력한 企業體質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競爭力強化를 위한 政府의 役割은 企業이 자유롭게 競爭하고 發展할 수 있도록 與件을 造成하는 데 있다고 보며 이러한 觀點에서 향후 政府政策運用의 課題는 ① 經濟體質의 安定化 ② 經濟活動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 확충 ③ 公正하고 開放된 競爭體制(fair and open competition)의 구축 등 3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머 리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無限競爭’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世界經濟秩序變化는 ‘大變革’이라 불리울 만큼 전례없이 그 速度가 빠르고 幅이 넓으며 또한 깊은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國內의으로도 그 동안 敵對와 緊張으로 이어졌던 分斷의 時代가 비로소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며, 급작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를 統一에 대비하여 이제는 經濟分野에서의 關聯課業을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時點이 도래하였다 하겠다. 이와 같은 對內外 與件變化를 감안하여 우리 經濟가 당면한 課題를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國際무대의 치열한 無限競爭에서 이길 수 있고, 아울러 統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總體的인 國家力量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와 東亞日報에서 ‘急變하는 世界와 政策的 對應’이라는 주제로 이틀간에 걸친 政策討論會를 마련하신 것도 이와 같은 여건을 십분 감안한 결과라 판단되며,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은 世界經濟의 變化와 各國의 對應, 그리고 우리 經濟의 現住所에 대해 간략히 진단해 본 다음, 우리 經濟가 당면한 課題들을 國家競爭力 強化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 2. 世界經濟의 新秩序 形成과 各國의 對應

### 2.1. 世界經濟環境의 變化

UR協商 타결에 의해 세계의 自由·公正貿易規範이 확립됨으로써 이제 세계는 ‘하나의 市場’이 되는 새로운 章이 열렸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 무역규범은 交易自由化의 범위를 종전의 工產品에서 農產物뿐만 아니라 서비스·知的財産權 등 교역이 가능한 거의 모든 분야까지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單一市場을 지향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출범하게 되는 WTO체제하에서는 資本·技術·人力 등 생산요소의 국가간 自由移動을 추구하는 새로운 多者間國際規範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勞動條件·競爭與件·技術開發을 貿易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마도 21世紀의 세계시장은 地理的·政治的 國境이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지 못하는 單一市場으로 통합되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더하여 通信技術의 발달과 情報의 폭발적 확산에 힘입어 기업활동의 地理的·物理的 制約이 극복됨에 따라 企業活動의 視界와 領域도 汎世界化하여 이제 國籍企業의 의미는 점차 상실되고, 대신 超國籍企業(transnational enterprise)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노동·자본·기술 등 생산요소를 最適結合하게 됨으로써 기업간 無限競爭이 전개되는 가운데 世界分業構造의 개편도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世界經濟의 統合化 추세 속에서도 脫冷戰 이후 경제력을 중심으로 世界秩序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NAFTA·EU·AFTA 등 지역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地域主義가 동시에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事前 對應戰略이 미흡할 경우 상당한 국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世界經濟의 新潮流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示唆點을 찾아보기로 한다. 우선 負擔스러운 측면을 보면, 첫째 우리 企業들이 해외시장에서는 물론 國內市場에서도 海外企業과 無差別的 競爭을 해야하는 短期的인 苦痛이 따를 것이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같이 政府가 國境을 방패로 하여 국내기업을 支援·保護하기가 더 이상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對外開放이 확대되면서 무역거래는 물론 金融·資本去來에 있어서도 世界經濟와의 統合이 크게 진전되어 國內外 巨視經濟政策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고, 이에 따라 獨自의 巨視政策의 운용여지는 상당수준 縮小될 것이다.

그러나 국경없는 單一世界市場의 출현은 개개 國民經濟의 활동영역을 규정하던 市場制約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경제의 成長潛在力을 최대한 발현

할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이며 아울러 今世紀內에 先進國 進入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로 對外經濟政策研究院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WTO체제 출범 이후 확대된 市場과 낮아진 關稅率로 우리의 수출은 1995년 이후 10년간 225억불이 늘어나고, 그 결과 國民所得도 같은 기간에 283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새로운 세계경제의 조류는 분명 우리에게 試鍊이요, 挑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제 2의 經濟跳躍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機會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 2.2. 世界 各國의 對應

한편 이와 같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自國의 生存과 繁榮을 위한 國家競爭力 強化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나라마다 처한 특수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共通的인 特徵을 찾아보면 政府次元에서는 ① 과감한 規制緩和를 통한 競爭의 촉진, ② SOC·科學技術·人力開發 등 인프라의 확충, ③ 開放化·國際化的 促進 등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으며, 企業들도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을 통한 企業體質 강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國家競爭力強化를 위한 各國의 對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美國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民·官 合同의 노력의 결과 日本·유럽 등 다른 先進國들이 景氣沈滯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93년부터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政府次元의 노력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첫째로 政府는 93년 ‘新技術開發戰略’을 수립, 100개 核心技術 분야에 대한 과감한 稅制 支援을 하고 國家科學技術委員會를 創設한 바 있다.

둘째로 88년의 “貿易 및 競爭力에 관한 종합법”에 의거 91년에는 ‘競爭政策委員會’(CPC)가 정식으로 發足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美國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國家戰略을 수립하기 위해 議會와 行政府 指名委員 합동으로 構成되었다.

셋째로 ‘國家政策委員會’(위원장: Gore부통령)에서는 規制緩和·國民指向的 행정서비스 창출·行政組織 개편·豫算節減 등 政府의 競爭力強化를 위한 4대 행정쇄신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더 열심히, 더 싸게(Works Better, Costs Less)”라는 기치하에 政府도 國民을 顧客으로 하는 서비스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보다 효율적인 政府機能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업 분야를 보면 한때 競爭力 喪失로 美國經濟를 어렵게 한 自動車·情報通信·고품위 TV·소프트웨어産業 등에서 줄기찬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으로 美國이 다시 이들 분야에서 超一流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IBM社는 인력을 1/2 수준으로 減量하고 自動化로 대체하여 生産性을 늘림으로써 黑字經營으로 전환하였고, 크라이슬러社는 리스트럭처링등 經營革新을 통해 乘用車 開發기간을 종전의 60개월에서 31개월로 短縮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 2.2.2. 日本의 경우

對內的으로 4년째 지속되는 불황과, 對外的으로는 엔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戰略을 착실히 推進 중에 있다. 政府는 ‘規制緩和 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競爭을 促進하고 事業機會를 創出하며, 93個 大型 核心技術開發 프로젝트에 대한 研究開發體制를 構築, 海外投資에 대한 保險·金融지원강화 등 支援施策을 講究 중이다.

기업들도 過剩生産能力을 축소하고, 海外로 生産基地를 移轉하며 多國籍企業化를 추진하는 등 엔高 극복을 위한 自救的 생존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쯔다社의 경우는 自動車 相關산업을 세계의 最適 生産據點에 分散推進함으로써 費用의 最小化戰略을 구사하고 있으며, 도시바社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開發技術을 蓄積하기 위하여 美國 모토롤라社와 전략적으로 提携한 바 있다.

### 2.2.3. 유럽 聯合: EU

인프라스트럭처 再構築·勞動市場改革·規制緩和 등 3대전략을 통한 經濟強國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單一通貨 추진에 이어 國境을 超越하는 社會間接資本의 통합에 본격 착수하여 유러터널을 개통하는 등 物流基盤을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構築하고, 이를 위해 政府財政외에 民間資本을 적극 誘致할 계획으로 있다. 유럽전역에 걸친 超高速情報通信網 통합구축을 위해 회원국 정부가 獨占 運營해 온 電話事業을 民營化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失業問題에 대응하여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強化中이다. 獨逸 폭스바겐사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勤勞時間을 단축(36→28.8시간)함으로써 3만 명의 해고를 豫防하였고 伊太利는 物價連動 賃金引上制를 폐지함으로써 일자리 확보등 雇傭安定에 주력하고 있으며, 英國에서는 成果給制를 확대 시행하여 賃金과 生産性을 연계시키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 2.2.4. 아시아 各國

日本 등으로부터 이전된 最尖端技術과 자국의 勞動力을 결합함으로써 놀라운 속도로 成長基盤을 확충해 가고 있다.

中國은 해안지역 7개 開放特區를 중심으로 지난 한해 동안에 1,200억불에 이르는 外國人 投資를 誘致한 것으로 추정된다(우리 나라는 지난 33년간 120억불 유치). 臺灣은 아·태지

역에 있어 交易・投資・金融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절반을 外國人投資自由地域으로 造成하기 위한 計劃을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이 成功할 경우 대만 전체가 제 2의 홍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은 自國産業 保護措置 철폐・완전한 外國人投資開放 등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企業環境 마련에 주력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蘇州에 ‘제 2의 싱가포르’를 建設하겠다는 야심찬 計劃을 중국과 이미 합의해 놓은 상태이다.

### 3. 우리 經濟의 現住所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비교적 순조로운 世界交易與件 속에서 後發者의 利點을 활용하고 양질의 勞動力과 政府의 강력한 開發意志를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그 결과 GNP와 貿易規模가 각각 세계 13위라는 지표가 말해 주듯이 우리의 국제적인 位相도 크게 제고되어 왔으며, 조선・철강・반도체 등 몇몇 分野에 있어서는 우리의 製品이 世界市場을 석권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外形上의 成長規模 및 國際的 位相提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現實은 청산되어야 할 後進의 制度・慣行이 아직도 散在하고 있어 無限競爭時代에의 대응은 물론 國家競爭력을 極大化하는 데 많은 制約要因이 상존하고 있다. 신정부 출범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企業活動을 제약하는 各種 規制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며, 賃金・地代・物流費用 등 높은 生産要素費用도 대의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經濟構造面에서는 大企業과 中小企業・重化學工業과 輕工業・都市와 農村 등 不均衡 成長構造의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의 극대화가 제약받고 있으며, 教育制度의 문제점으로 인해 創造的 技術人力的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情報化・知識産業化를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하겠다.

또한 國民意識에 있어서도 閉鎖的이고 受動的인 對外經濟觀이 상존하고 있어 새로운 국제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지 못하고 있으며, 國際化・世界化를 위한 專門人力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國際競爭力의 지표라 할 수 있는 世界市場 占有率이 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下落(88년 2.3%→92년 2.0%)하고 있으며, 企業環境의 우열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外國人投資 誘致實績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88~92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액 : 한국 55억불, 태국 304억불, 중국 876억불).

한편 최근 발표된 世界經濟포럼(WEF)의 國家競爭力 報告書(1994. 9월)에서는 우리의 競

爭力 수준이 18개 開途國 중 7위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화정도 (13위)·金融(13위)·政府서비스(10위)·SOC(9위) 등의 미흡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WEF의 평가방법에 다소 問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이 報告書의 내용이 합측하고 있는 우리 經濟의 문제점을 겸허히 受容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과거 30년간 高度成長을 뒷받침해 온 後進的 制度·規範·慣行이 開放化·國際化라는 새로운 世界經濟秩序 속에서는 더 이상 유효한 ‘發展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새로운 世界經濟 흐름에 대응한 대비태세가 한층 構造的이고 積極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 4.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當面課題와 發展方向

##### 4.1. 經濟運用의 새로운 ‘틀’ 定立

冷戰의 終結과 함께 國際化·開放化가 가속되면서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國家競爭力이 世界秩序 形成의 基本要素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國際化·開放化時代의 의미는 民間經濟主體들이 지구의 어디에서건 유리한 여건의 사업을 찾아 자유롭게 立地를 선택하고 바꿀 수 있는 機會開放의 時代를 말하는 것으로, 經濟運用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個別產業에 대한 政府의 直接的 介入이나 保護·支援 등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無限競爭에서 살아남고 21세기의 새로운 繁榮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經濟運用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즉, 민간과 정부간의 새로운 ‘役割分擔’ 아래 民·官協同體制(business-government partnership)를 형성하여 政府·企業·개개 國民 모두의 경쟁력을 망라한 ‘總和로서의 國家競爭力’을 제고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政府의 役割은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하는 데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經濟發展이 사실상 政府主導下에 이루어져 왔다면, 앞으로는 成長·輸出 등 實物經濟의 발전이 民間에 의해 實質的으로 주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民間企業들은 변화하는 企業環境을 겸허히 수용하고 未來에 대비하는 과감한 經營革新을 통해 강력한 企業體質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4.2. 政府의 政策運用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한 經濟與件의 造成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政府의 政策運用課題는 ① 經濟體質의 安定化 ② 經濟活動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 확충 ③ 公正하고 開放된 競爭體制(fair and open competition)의 구축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4.2.1. 經濟體質의 安定化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리 經濟를 확고한 安定體質로 만들어 가는 것이 先決課題이다. 미국등 先進國의 經驗에 의하면, 인플레이션이 生産性을 弱화시키는 主要要因이며,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후에는 인플레가 진정되더라도 결코 以前과 같은 生産性 增加速度를 회복할 수 없었다.

또한, 經濟安定에 실패한 南美的 여러 나라가 쇠퇴의 길을 걸어간 반면, 우리의 競爭相對國인 臺灣, 싱가포르 등이 낮은 物價上昇率 속에 高度成長을 持續하고 있는 것은 經濟安定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經濟가 安定되려면 먼저 政府政策이 安定的이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政府政策이 갑자기 들출한다거나 政策이 지나치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안정을 해치는 原因이 되므로, 가급적 충분한 意見收斂과 共感帶形成을 해 나가면서 政策을 運用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尙後 巨視經濟政策의 최우선 순위를 物價安定에 두어 運用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금년 下半年 이후 95年으로 이어지는 景氣를 適正管理하기 위하여 通貨를 최대한 安定的으로 관리하는 한편, 1년이상 2년미만 受信金利등 '3段階 金利自由化' 대상 중 일부를 年內에 早期實施함으로써 金利의 價格機能을 提高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한편 通貨의 緊縮運用시 金利上昇과 物價上昇을 초래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景氣와 物價의 下位政策目標라 할 수 있는 金利安定에 집착하여 通貨를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短期的으로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으나, 窮極의으로는 物價上昇으로 이어져 名目金利의 再上昇과 이에 따른 對外競爭力의 惡化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持續的인 安定基調의 추진으로 物價安定이 先行되어야만 賃金 및 名目金利가 안정되고 따라서 構造的인 經濟安定基調가 다져지는 '善循環' 構造的의 구축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 海外證券 발행등으로 인한 外貨 流入效果가 지나친 通貨增發과 物價上昇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韓銀의 外換市場 介入을 가급적 自制함으로써, 換率이 外換需給事情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換率切上으로 인해 企業의 對外競爭力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適正水準의 換率切上은 企業全體로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 하면 資本收支黑字는 결국 輸出先受

金・延支給 輸入擴大・外國人 株式資金 유입 등 海外資金 유입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이는 결국 輸出企業들에게 海外 低利資金을 사용케 함으로써, 金融費用을 절감케 하여 輸出競爭力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企業의 입장에서는 “海外 低利資金을 사용하면서 換率切上을 堪耐하느냐? 또는 換率切上을 우려하여 低利의 海外資金을 사용하지 않느냐?”하는 選擇의 問題인 것이다. 한편 금년 1~9월 중 ‘원’貨의 미국달러貨 대비 절상률은 1.2%로 같은 기간 중 엔貨의 12.8%, 대만달러貨의 1.9%에 비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KDI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원貨의 實質實效換率は 107 수준(1985=100)으로 아직 低評價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도 日本企業의 ‘엔’高 대응전략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換率切下가 뒷받침된 價格競爭力에 의존하기보다는 技術開發과 마케팅 擴大 등을 통하여 非價格競爭에서 優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輸出戰略을 轉換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안정적인 通貨・換率政策과 함께 財政面에서도 一般會計豫算을 黑字로 편성하는 등 經濟安定基調를 확고히 뒷받침하고, 工產品과 個人서비스料金 등 部門別 物價安定을 위한 努力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나라의 OECD 加入이 96년에 예정됨에 따라 外換・資本自由化와 金融改革을 당초 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巨視政策의 運用능력이 상당수준 制約될 것으로 보이므로, 安定的인 財政・金融政策의 기틀을 빠른 시일내에 닦아놓는 일이 急先務라 하겠다.

#### 4.2.2. 經濟活動의 下部構造 擴充

國家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해 政府가 해야 할 다음 과제는 社會間接資本과 人的資本 등 경제활동의 下部構造(infrastructure)를 확충하는 일이다. 企業이 스스로 生産要素의 最適調습을 목표로 國境을 넘나들며 자유로이 입지를 선택하게 된 오늘의 현실에서 각국의 競爭力은 결국 輸入이 불가능(non-tradable)한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것은 民間企業에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政府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위해 交通稅 新設 등을 통해 財政投資를 大幅 擴大해 나가고 있다. 한편, 최근 世界銀行(IBRD)이 발간한 94년도 世界開發報告書에서는 開途國의 경우 社會間接資本의 공급・운영상에 非效率性과 浪費要因이 많으며, 그 주된 이유로 競爭原則의 缺如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SOC 서비스제공에 있어서도 商業主義와 競爭原理 및 顧客參與를 擴大하고, SOC의 供給 및 운영에 있어 民間部門의 參與가 增大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도 이미 이러한 問題點을 간파하고 지난해부터 ‘SOC에 대한 民資誘致促進法’의 制定을 추진하여 왔으며, 아시다시피 지난 臨時國會에서 法案이 통과되어 法的 裝置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年內에 施行令을 制定하고 基本計劃을 樹立하여 내년초부터는 民資誘致事業이 본격화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SOC 民資誘致事業과 관련하여 동사업이 經濟力集中을 深化시키고, 過度한 SOC 投資로 인하여 製造業등에의 驅逐效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 憂慮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經濟力集中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大規模投資가 소요되어 大企業의 참여가 예상되는 1種 施設(기본시설)의 경우 건설이 끝난 후 施設自體를 國家에 歸屬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 政策의 施行이나 個別事業의 選定過程에 있어서 中小企業 곤소시움 형태의 참여를 優待하고, 適正利潤率을 10%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特惠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過剩投資의 우려에 대해서는 基本計劃의 수립과정에서 投資가 適正成長에 필요한 범위(年平均 7% 經濟成長時 GNP 對比 4.5%수준 추정)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적절히 調整해 나갈 계획이다. SOC가 확충되면 長期的으로 제조업의 投資 收益率이 향상되어 오히려 제조업 투자를 誘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人的資本에의 投資’를 擴充해 나가야 하겠다. 人的資本에 대한 投資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廣義의 인프라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企業間 競爭의 核心이 될 技術力 수준 역시 한 나라의 인적 자본의 質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인적 자본의 확충은 教育制度和 教育에 대한 투자, 그리고 產業人力의 需給安定과 訓練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문제는 純粹經濟問題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언급을 삼가코자 한다.

產業人力의 需給問題는 보다 심각한 當面課題이다. 최근 輸出과 製造業을 중심으로 景氣가 回復趨勢에 들어서면서 生産人力難이 나타되고 있으며, 이러한 趨勢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미 일자리를 갖고 있는 人力도 앞으로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한 構造調整過程에서 보다 높은 技術訓練을 시키지 않으면 雇傭不安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政府는 지난 7월 9일 大統領 主宰 擴大經濟長官會議에서 ‘產業人力需給 圓滑化方案’을 마련하고, 勞動部를 중심으로 教育部·商工資源部·科技處·農水產部 등이 참여하는 ‘新人力政策企劃團’에서 이를 착실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였다.

우선 主婦人力을 產業人力으로 활용하는 등 產業人力의 循環構造改編(recycle)을 유도하

고, 農漁村轉業人力·遊休高齡人力·早期退職者·輕症障礙者 등을 産業人力化하는 方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企業의 職業訓練施設이 확충되도록 앞으로 97년까지 3년간 6,300억원의 長期低利資金을 지원하고, 14개의 公共職業訓練院도 점차 技能大學으로 改編해 나갈 계획이다.

#### 4.2.3. 公正하고 開放된 競爭體制的 構築

마지막으로 國家競爭力 제고를 통하여 우리 經濟가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선결조건 중의 하나는 經濟全般에 걸쳐 公正하고 開放된 競爭(fair and open competition)을 촉진하는 것이다.

(1) 이 말에는 다소 含蓄의 意味가 내재되어 있는바, 우선 ‘市場의 失敗’ 가능성이 명백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각종 介入·規制를 이제 과감히 철폐하여 ‘市場 메커니즘’에 따른 ‘競爭’ 體制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자는 것이다.

따라서 巨視經濟政策 운용에 있어서는 종래의 直接規制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市場機構를 통한 間接規制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아울러 여신관리제도·중소기업 高유업중제도 등 數量制限이나 進入制限과 같은 정부개입에 의한 直接的인 微視的 資源配分政策도 이제 단계적으로 불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신 競爭原理에 의해 資源의 最適配分이 촉진될 수 있도록 經濟運用의 基本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政府가 그 동안 900여건의 각종 行政規制를 완화하고 200여건을 조치 중이며 22개 분야의 重點課題를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것도 競爭의 促進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金融등 民間이 계속적으로 問題를 제기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規制緩和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2) 다음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公正’한 競爭體制를 뿌리 내리 진정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기업이 正當한 代價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우리의 成長潛在力을 최대한 발휘하는 의미이다. 정부가 公平課稅를 위한 稅制改革을 新경제의 주요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公正去來制度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최근 論難이 되고 있는 公正去來制度上的 ‘經濟力集中緩和施策’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大規模 企業集團이 그 동안 경제개발과정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수특정인의 船團式集團 經營方式은 기업 집단의 專門性 低下에 따른 非效率性 문제를 발생시키고, 金融資金의 偏重配分과 中小企業

分野에의 무분별한 참여는 中小企業의 發展을 저해하여 國家全體의 競爭力을 떨어뜨리고 國家資源의 非效率的 配分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족지배형태의 소유·경영 구조를 탈피하여 所有分散과 專門獨立經營體制를 갖추면서 강한 競爭力을 갖춘 先進型企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經濟力集中 抑制施策도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制度의 補完·發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政府가 지난 8월 9일 立法豫告한 바 있는 ‘公正去來法 改正案’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同 改正案은 우리 나라 大規模 企業集團 특유의 過度한 所有集中과 무분별한 系列企業 擴張으로 인한 經濟的 非效率性을 제거하기 위하여 出資總額限度를 전반적으로 인하(40%→25%)하면서, 所有分散이 잘된 企業에 대해서 出資規制를 배제하고, 國家競爭力強化 施策과 관련한 SOC民資出資·業種專門化 出資에 대해서는 출자규제의 例外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또한 對內外的으로 차별을 두지 않는 ‘開放’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國際規範을 적극 受容하여 국내기업의 自生的인 競爭力 제고노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外國企業의 國內進出도 적극 유도해 가자는 의미이다. 政府가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工產品뿐만 아니라 農產物과 서비스 市場에 대한 실질적인 開放을 받아 들인 것은 궁극적으로 競爭을 통한 ‘플러스’ 要因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關稅率을 대폭 낮추고 補助金을 정리하는 것도 유효한 對外與件을 조성해 주려는 것이며, 지난 6월초 ‘外國人投資 誘致를 위한 綜合對策’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참고로 OECD에서는 1987년 競爭政策委員會(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를 常設化하고 각국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競爭政策의 테두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에 관한 國際規範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카르텔, 덤핑과 반덤핑, 국제적 企業引受·合併, 流通分野에 대한 政府規制 등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規律을 발전시키고 있다.

#### 4.3. 企業의 役割과 課題

政府가 改革과 變化를 추구하는 데 발맞추어 企業도 自律化·開放化時代에 맞게 變身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國際化·開放化의 급속한 진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조차 世界 超一流企業과의 競爭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經濟民主化의 진전에 따라 政經嚮着이 단절되고, 각종 競爭制限의 規制의 緩和로 과거처럼 ‘로비’를 통한 特惠나 認·許可에 의한 地代差益(rent-seeking)의 機會도 사라지게 되었다.

아울러 勤勞條件의 개선과 分配正義를 주장하는 勤勞者의 要求가 날이 갈수록 힘을 더해 가고 있으며, 一般國民들의 성숙한 消費者意識은 맹목적인 國產品 愛用을 더 이상 허용치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 企業들이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승리하고 發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企業環境을 겸허히 수용하고 未來에 대비하는 과감한 經營革新을 통해 강력한 企業體質을 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한 企業次元의 課題는 크게 보아 ① 企業內 技術水準과 혁신적인 經營戰略 ② 企業經營組織의 효율성 ③ 發展的인 企業經營文化의 定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 4.3.1. 企業의 技術水準과 革新的인 經營戰略

첫째로 WTO體制 출범등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질 技術競爭·經濟力競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企業內 技術水準을 높이고 세계를 무대로 生産基地와 販賣網을 구축하는 등 經營戰略을 革新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實物投資 擴充과 業種多角化에 주력한 나머지 技術開發과 經營革新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賃金·金利·땅값 등 生産要素費用이 競爭國에 비해 높은 상황하에서는 價格競爭力만으로는 비교우위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自動化·原價節減 등을 통해 生産성과 效率을 높이고, 고유의 技術을 확보하여 新製品開發에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울러 經營과 技術에 있어 國境을 초월한 企業間의 戰略的 提携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는 ‘내’ 技術이 있어야 ‘남’의 技術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겠다. 대부분의 先進國 優良企業들은 國際去來에서 종래와 같이 단순히 輸出을 늘리고 世界市場에서의 占有率을 늘리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生産基地의 海外移轉이나 販賣網 구축에도 부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3.2. 企業經營組織의 效率性 提高

過去 成長過程에서 外延的으로만 비태해진 우리 나라 企業의 經營組織과 構造가 새로운 環境變化에 맞게 革新되어 非效率要因이 과감히 제거되어야 하겠다. 情報化·國際化의 급속한 진전 속에서 先進國 優良企業들은 規模와 組織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온 반면에 우리 企業들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效率性이 크게 뒤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企業所有도 소수의 企業人에 편중되어 經營專門化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財務構造面에서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아 과중한 利子負擔이 競爭力 弱化的 한 要因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의 經營組織과 構造가 先進國의 優良企業들에 뒤지지 않도록

록 개편되고 革新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時代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의 經濟成長을 주도해 온 大企業群은 投資가 지나치게 多角化되어 있고 主力產業部門의 企業經營 規模는 先進優良企業에 비해 매우 작은 실정이므로, 國際舞臺에서의 효과적인 競爭을 위해서는 主力業種을 중심으로 한 企業再編作業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技術·人力開發, 資金 등의 面에서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에 協力關係를 구축함으로써 世界企業과의 競爭에 대비함은 물론, 經營의 效率化를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 4.3.3. 發展的인 企業經營文化의 定着

마지막으로, 人間의 욕구변화를 수용하는 企業經營文化의 定着이 필요하다 하겠다. 知識과 技術의 진보, 그리고 生産力의 增大는 人間의 삶의 條件을 향상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價値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最近 一部 企業들이 ‘人間中心의 經營,’ ‘顧客을 위한 價値創造’ 등의 經營戰略目標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顧客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함께 企業活動이 이루어지고 있는 地域에 대한 社會的 責任과 奉仕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우리 企業들이 國家經濟에 많은 기여를 한 데 비해 企業에 대한 社會的 認識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風土에 있어서는, 企業이 地域社會發展에 필수적이라는 認識을 심어줄 수 있는 보다 積極的인 努力이 필요하며, 이는 成功的인 海外進出을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결국 企業이 경영자와 근로자가 뭉쳐 地域과 人類社會에 공헌하나 하나의 價値를 창조하는 社會的 資産이라는 認識이 확산될 때 企業에 대한 社會的인 信賴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企業 스스로가 競爭與件 變化에 새로운 對應努力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勞使關係의 중요성에 대한 認識도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擴散시키고 變化를 가속화시키는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 5. 맺 음 말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19세기 開港期이후 가장 중요한 歷史的 變化의 고비에서 다가오는 21世紀의 中長期的 發展 ‘비전’을 갖고 國家競爭力 강화를 통해 再跳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課題의 달성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世界經濟環境의 變化의 물결은 急速하고 構造的인 데 비해 우리의 대응여건은 과거 政府主導下의 發展體制가 남긴 유산으로 인해 迅速한 構造的 對應이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金融自律化의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정하지만 그것은 과거 30여년간의 成長支援型 金融體制에서 파생된 대규모 政策金融의 縮小문제와 맞물려 있어 신속하고 구조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우리 企業의 競爭力강화도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체비도 끝나기 전에 開放의 파도는 우리 발끝앞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모든 개별 經濟主體들이 경제국제화와 경쟁력강화의 必要性을 철저히 인식하고 短期的인 苦痛보다는 中長期的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利得을 생각하며 다같이 同參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最近의 景氣動向은 과거 수년간의 沈滯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上昇局面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景氣上昇의 력을 構造的인 競爭力強化로 활용할 수 있는 知慧를 발휘해야 하겠다.

靑瓦臺 經濟首席

110-05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전화 : (02) 730-5800

팩시 : (02) 730-5800

##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1994a): “經濟國際化 推進計劃.”

\_\_\_\_\_ (1994b): “올해 經濟運營의 모습과 展望.”

\_\_\_\_\_ (1994c): “OECD 加入推進과 우리 經濟의 國際化.”

國土開發研究院(1994): “社會間接資本의 投資效果 分析和 民資誘致方向.”

對外經濟政策研究院(1994): “WTO 出帆과 新交易秩序.”

大韓民國政府(1993): “新경제 5個年 計劃(1993~1997).”

新경제計劃委員會(1993): “新경제 100日 計劃.”

丁濺錫(1994a): “最近 우리 經濟의 흐름과 展望,” 大學商工會議所 강연자료.

\_\_\_\_\_ (1994b): “國家競爭力 強化를 위한 政府政策과 企業의 對應,” 全國經濟人聯合會 강연자료.

IBRD(1992): “Korea Country Economy Memorandum.”

OECD(1994): “OECD Economic Survey: KOREA.”

WEF/IMD(1994):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4.”